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미 일자리 11만9천개 상승...실업률은 상승
- WSJ: 필라델피아 제조활동 지수 약간 하락
- Bloomberg: 지난주에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22만 개로 줄어
- Reuters: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 리스크 키워”

[물류]

- CNBC: 중국 무역 추락에 미 화물 시장 하락세

[오일]

- Bloomberg: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다가오면서 오일가 소폭 상승

[주택]

- YahooFinance: 10월 미 주택 판매 상승...낮은 모기지율 이용

[인공지능]

- WSJ: 엔비디아 강한 실적, ‘AI 거품론’ 잠재웠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월마트, 나스닥 거래사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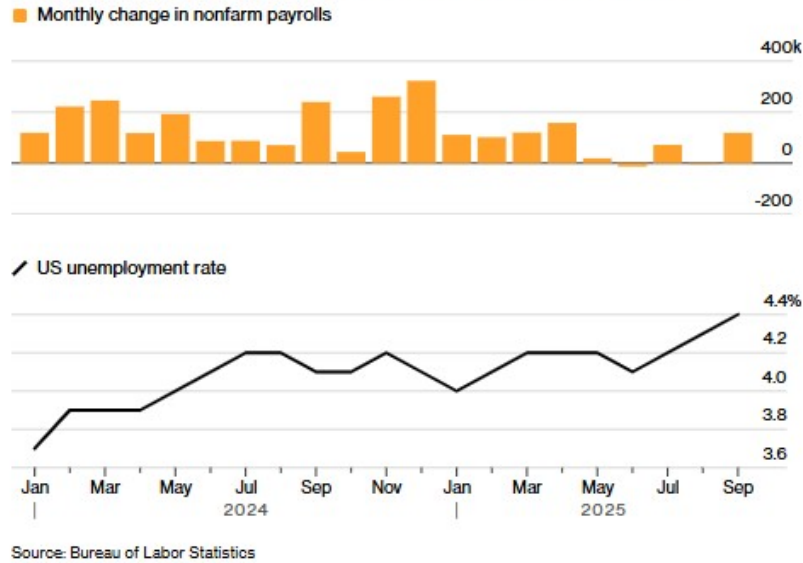
[미국 경제]

Bloomberg: US Added 119,000 Jobs in September, Unemployment Rate Rose
9월 미 일자리 11만9천개 상승...실업률은 상승

- 9월에 미 일자리가 전월에 하향 이후 상승했다. 반면에 실업률은 높아져 고용 시장 약세속에 상반된 지표가 나왔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8월에 일자리가 하향 조정된 후에 9월 들어 11만9천개로 증가했다. 반면에 실업률은 거의 4년 만에 높은 4.4%로 상승했다.
- 예전 보고서에서는 ‘낮은 해고와 낮은 채용’ 상황의 고용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잇따른 해고 발표로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US Payrolls Rebound in September After August Decline

The unemployment rate climbed to the highest since late 2021



Bloomberg 기사

WSJ: Philadelphia Area Factory Activity Falls Back Slightly

필라델피아 제조활동 지수 약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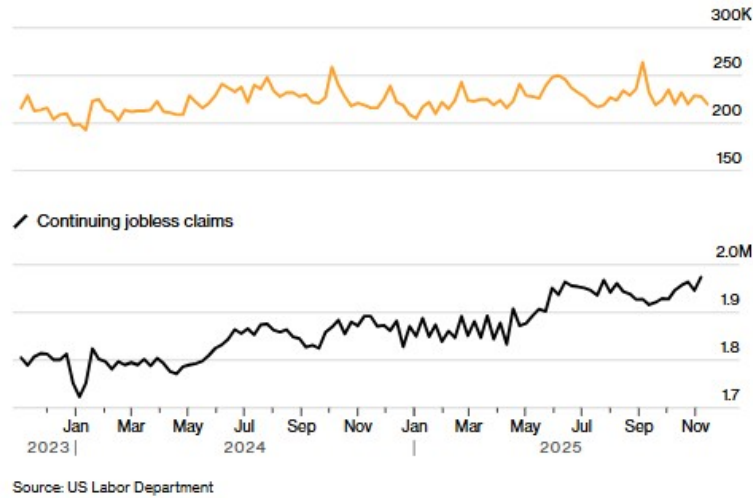
- 11월 들어 필라델피아 제조 활동 지수가 위축되었다.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10월에 마이너스 12.8에서 11월 들어 마이너스 1.7을 기록했다. 이번 달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폭 위축됐다. 마이너스의 경우 위축을 말한다.
- 신규 주문 지수는 지난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더욱이 출하 지수의 경우 올해 5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 이 같은 제조 활동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를 보고 했으며 향후 6개월간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Declined to 220,000 Last Week\

지난주에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22만 개로 줄어

- 지난주에 신규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으로 줄어들어 불확실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15일에 끝나는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8천 건 감소했다.
- 그리고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해고가 늘고 있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둔화하고 있다. 만약 향후 수주간 해고되는 인력이 증가할 경우 실업청구건수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실업자의 재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Fed's Hammack warns more rate cuts court financial stability risks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 리스크 키워”

-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오늘 목요일 지금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경제에 대한 각종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필라 연준의 컨퍼런스에서 “현재 인플레이가 연준 2% 목표제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리스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는 고물가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위험 감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완화적인 신용 대출 여건 상황속에서 금융 여건은 다소 ‘완화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더 낮은 신용은 위험한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물류]

CNBC: ‘This is a structural goods recession’: U.S. freight market is starting to roll over as Chinese trade plummets

중국 무역 추락에 미 화물 시장 하락세

- LA항만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롱비치 항만 책임자인 Mario Cordero는 “올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기록적이었지만 현재 중국 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리얼타임 컨테이너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으로 향하는 해양 컨테이너 물량이 줄고 있으며 공급망을 통한 물량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 데이터 추적 조사 회사인 Vizion의 대표인 Kyle Henderson은 “이 같은 현상은 계절적인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구조적인 제품 침체라고 말했다.

- 또한 지금까지 정부 섯다운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수요일 발표된 미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CNBC 기사

[오일]

Bloomberg: Oil Nudges Higher Ahead of Looming Russia Sanctions Deadline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다가오면서 오일가 소폭 상승

-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러시아에 요구하면서 러시아 정유 회사 Rosneft PJSC와 Lukoil PJSC에 대한 제재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오일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 미국의 이들 원유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미 원유 흐름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중 한 개인 Lukoil PJSC는 해와 관련 자산의 매입처를 찾고 있다.
- 유럽연합도 오일을 운반하는 러시아의 비공식 유조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보다 강한 대 러시아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

YahooFinance: US homes sales rose in October as homebuyers seized on declining mortgage rates

10월 미 주택 판매 상승...낮은 모기지율 이용

- 낮아진 모기지율로 구매자들이 증가하면서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 2월 이래가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다.
- 지난 9월과 비교하여 기존 주택 판매건수가 1.2% 상승해 계절별 연율로 4백10만채를 기록했다.
- 작년 10월과 비교해서도 1.7% 상승했다. 한편 10월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작년 동월에 비해 2.1% 상승해 중간값이 41만 5천2백 불을 기록했다.

YahooFinance 기사

[인공지능]

WSJ: Nvidia's Strong Results Show AI Fears Are Premature

엔비디아 강한 실적, 'AI 거품론' 잠재웠다

- 어제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는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연 기준으로 66%를 초과했으며 처음으로 5백억달러를 넘어섰다.
- 그리고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조정 운영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1% 포인트 증가했다.
- 이 회사의 주식은 29배의 예상 수익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이후로 지난 3년 평균보다 대략 19% 낮은 수치로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Walmart Jumps to Nasdaq in Biggest Exchange Transfer on Record

월마트, 나스닥 거래소로 이동한다

- 월마트가 그의 주식 상장을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로써 뉴욕증권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이탈’로 보여진다.
- 이 회사는 오는 12월 9일부터 Nasdaq Global Select Market에서 상장 거래를 시작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9개 채권 상장도 이 거래소로 이전된다.
- 월마트의 이 같은 변화는 ‘기술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티커 이름을 그대로 WMT를 사용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